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연료 갈등 속 한국지역난방공사 상대 조만간 내기로 난방공사 측 “고형연료만으로 안정적 열 공급 어려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설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광주일보 8월 24일, 9월 1·14·21일 11면>와 관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나주시는 26일 난방공사측이 광주에서 반입한 ‘비성형’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이용한 발전소 시운전에 들어간 것과 관련, “조만간 법원에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09년 체결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따라 발전소에 쓰일 고형연료를 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 지역에서

만 들여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난방공사측은 “나주·목포·순천 권역에서 들어온 고형연료만으로는 혁신도시 내 안정적으로 열 공급을 하기 어렵다”면서 나주·화순 등에서 생산하는 고형연료도 그대로 반입해 자체 처리를 거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성형, 비성형 할 것 없이 모든 연료를 다 쓴다는 것으로, 나주시측은 이와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방공사측은 다만, 애초 약속했던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성형 고형연료를 비성형 시설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광역자원화시설의 경우 현재 정상적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

다는 점에서 열병합발전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주시=송영철기자 ykson@kwangju.co.kr

밤낮없는 멧돼지 피해...농작물 피해 극심

광양시 소극적 대처에 불만 속출

광양시 다압면 농민들이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다,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올때마다 밭을 속대밭으로 만들어놓기 때문이다.

26일 광양시 다압면 주민들에 따르면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요구했지만 광양시 등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의 배모(59)씨는 “멧돼지가 코를 땅에 대고 밭을 밟아 버리는 탓에 한 마리만 내려와도 하루 밤새 밭이 엉망으로 변한다”면서 “올 들어 멧돼지가 습격해 농작물 피해를 본 것만 수십 차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수십 번 피해 연락을 했지만 현장답사 한번 나오질 않는다”면서 “밤에는 멧돼지가 와도 겁이나 내다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광양시 다압면 등 일부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멧돼지 출몰이 잦고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만 광양시 등은 주민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 주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냥지 밀도를 낮추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함평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나선다

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해보초 앞 미끄럼방지 포장 등

함평군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해보면 해보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사진)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시공하고 횡단보도 도색 작업, 노면표시 등 정비를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27곳 중 정비가 해보초교 등 정비가 시급한 구역을 대상으로 군비 1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단 발대식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의 환경문제와 안전을 감시할 환경·안전모니터단(사진)이 26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발대식(사진)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여수산단 내 대표 사업장을 중심으로 1년간 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

이들은 매주 한 차례 산단에서 대기 및 하천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배관·교통신설 등 시설물을 순찰하게 된다.

또 사업장별로 환경·안전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합동조사나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자 지난날 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정읍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개소

관련 사업 거점도시 발판 마련

미생물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미생물을 활용한 전문 연구·개발 기관이 정읍에 문을 열었다. 정읍시 안팎에서는 미생물 관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읍시 신정동에서 김성기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개소식(사진)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전북도와 정읍시 등이 지난 2014년 공동으로 유치했고 국·도비와 시비 등

모두 160억원이 투입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부지(1만490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건물면적 6525㎡)로 지어졌다.

센터에는 시험 생산동과 연구실형질, 공동연구실, 창업보육실 등이 들어섰고 핵심 시설인 시험 생산동에는 10t과 1.5t 크기의 중·대형 발효조, 동결 건조 시스템을 갖췄다.

센터는 미생물 관련 업계·기관과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미생물 제품화 연구, 민간업체 산업화 지원,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미생물을 활용해 농업용 비료와 축산용 발효 사료를 연구·개

발하고 대량 생산한다.

이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과 컨설팅 역할도 맡는다.

인근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 자원 발굴과 보존을 위한 ‘미생물 가치평가센터’를 건립 중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며 “정읍이 미생물 관련 산업 분야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기차 충전 편리해진다

전북도 충전기 추가 설치

연말까지 124개로 대폭 늘려

전북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점과 아파트에 충전기를 증점적으로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 설치된 충전기(급속 56, 완속 101) 157개 대부분이 개인 소유이거나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개방형이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누구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완전개방형 급속 충전기를 53개에서 연말까지 124개로 대폭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충전기는 대형상가나 주유소, 공공서 등에 주로 설치된다.

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중 80개 아파트에 204개의 충전기(급속 68, 완속 136)를 설치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구입 희망자는 개인용 충전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데도 충전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완전개방형 급속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되면 전기차 2.7대당 1대의 충전기를 보유해 충전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조례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판선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원도 약산 대지 1266㎡ 주택 27평과 별채 횡동방산 12393㎡ 포함 2억4천
- 서흥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안도 포함 4억
- 농성초교부근 2층 상가주택 대지 108㎡ 건평 113㎡ 1억8백
- 화정동 중흥파크2-1-1번 대지 149㎡ 주택 160㎡ 상가전용가능 2억3천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측주택 60여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담양 고서면2차선점 1271㎡ 건평 212㎡ 최고·식당·주택 4억73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복층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4차선점 대지 132㎡ 건평 237㎡ 은행 2억5천 매도 6억4천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사무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4천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준주거지 294㎡ 법원과 조세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4억5천

급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안근 1억7천
- 복구 우산동 모델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